

##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진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언제 밥 한끼 같이 하자'라는 말을 인사처럼 건네기도 한다. 그런데 평소에 같이 밥 한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시간이 있으면 나랑 같이 점심 먹을까?"라고 말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때는 "If you have time, let's have lunch!"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 어날 것이다.

1. 문을 잠가라!  
Lock the door.

2. 그의 나이를 고려해라!  
Consider his age.

3. 나머지를 저장해라!  
Save the rest.

4. 시간이 있으면 나랑 점심 먹자!  
If you have time, let's have lunch.

5.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6. 나보고 웃지 마!  
Don't laugh at me.

7. 소스를 찍어봐!  
Dip the sauce.

8. 담배를 계속 피우세요!  
Keep smoking!

9. 담배 피우지 마세요!  
Stop smoking!

10. 줄을 서 주세요!  
Please, stand in line.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 ESPN, 한국 프로야구 생중계 미국 팬들의 반응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던 2020시즌 한국프로야구(KBO) 리그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무관중으로 개막했다. 각 구단은 무관중 개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SK 와이번스는 팬들의 사진과 캐릭터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관중석에 설치했으며, LG 트윈스는 응원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개막 하루 전날 중계권 협상을 마친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전을 생중계했다. 중계를 시청한 미국의 야구팬들은 MBA개막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를 즐겼으며 이후 다양한 반응을 내 놓았다.

BBC에 따르면 미국의 한 야구팬들은 "고민 끝에 SK 와이번스를 응원하기로 했다." 며 응원팀을 정해 시청하는 것이 야구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저했다. 그는 응원 팀 선정 이유에 대해 "휴스턴에서 자랐기 때문

에 주황색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연고지로 하는 메이저리그 소속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SK 와이번스와 마찬가지로 오렌지색이 팀 컬러다.

다른 한 팬은 자신이 "지난 몇 시간 두산 베어스의 격렬한 팬이 됐다." 며 "라이벌 팀 LG 트윈스를 박살낼 것" 이 기대된다고 트윗하기도 했다. 미국 CBS 방송의 스포츠 앵커 제프 바커는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공룡 삼니다." 라며 앞으로 NCD다이노스 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한 이대호를 롯데 자이언츠에서 봤다며 반겼다. 그는 "시애틀 지역에서 본 투수와 매리너스 출신 이대호가 롯데 자이언츠에 있다." 고 말했다.

두산 베어스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위터에 재미있는 사실이라며 팀 응원가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도 했다.

## 미셸 위, 만삭 사진 공개 "12월 US여자오픈 출전할 수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둔 미셸 위(한국 이름 위성미)가 최근 만삭의 모습을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적인 스타 체리 웨스트의 아들 조니 웨스트와 결혼한 미셸 위는 올여름 첫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미셸 위는 꾸준하게 골프를 치고 LPGA 투어 해설위원과 음식을 주제로 한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셸 위는 전날 미국 골프매체 골프위크와 인터뷰하면서 '프로골퍼'가 아닌 '만삭의 임신부'로서 자신의 심정을 풀어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배 속 아이와 잘 지내고 있다." 고 밝힌 미셸 위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포도 밀려온다. 가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아기에게 우



유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악몽도 되풀이 된다." 고 털어놨다.

미셸 위는 "요즘도 골프를 치지만 3라운드밖에 하지 못한다. 만삭의 몸 때문에 4라운드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고 말했다.

미셸 위는 필드로 복귀할 계획도 세웠다. 그는 "임신 전에는 아기가 생기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라며 "딸을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훗날 아이에게 내가 강한 여성이자 선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고 말했다.

골프위크도 "오는 12월 중순 열리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미셸 위가 돌아올 수도 있다." 면서 "특히 고질적인 손목 부상을 출산과 휴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미셸 위는 2014년 US오픈 우승을 비롯해 LPGA 통산 5승을 기록했다.

##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